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성을 주제로 한 작품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 진채화 전공

황 윤 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성을 주제로 한 작품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f Work with the Theme of Love

－ Centering around researcher herself's works －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 진채화 전공

황 윤 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성을 주제로 한 작품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f Work with the Theme of Love

- Centering around researcher herself's works -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 진채화 전공

황 윤 경

황 윤 경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 0 1 4 년 12 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성을 주제로 한 작품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황 윤 경

일 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그곳, 배가 고프면 나도 모르게 편의점을 간다.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맛들이 진열 되어있다. 아주 맛있고 조리가 간단하다. 그래서 인지 내가 먹고 싶은 맛으로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다. 살이 찌고, 먹다보면 조미료 맛인지, 손맛이 없어서 인지, 금방 싫증이 나고 질린다.

어쩌면 오늘날의 성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든다. 매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성을 접할 수 있고 고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요즘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많다. 인터넷 세상은 “열려라 참깨” 하고 이야기하면 뭐든 얻을 수 있다. 쇼핑처럼 가볍게 이성을 골라 만나기도 하고, 사이버 섹스나 야동, 사진을 통해 쉽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무제한 마트처럼 구매 할 수 있다.

성욕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 중 하나이다. 아담과 이브가 탄생될 때부터 인간의 종족번식 필요성에 따라 성을 예술로 표현하며 수많은 에로티시즘 작품이 탄생했다. 옛 사람들이라고 욕정이 없었을까? 지금은 춘정을 자극하는 매체가 넘치는 시대이나, 옛날에는 기껏해야 한 장의 그림을 보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에로티시즘 문화는 예술의 한 부분이며 빼 놓을 수 없는 장르이다.

그리하여 작품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한중일 삼국의 춘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현대화시켜 성을 주제로 작업한 본인의 작품 설계 과정을 작품의 중요 주제와 소재, 기법, 색채,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여성의 몽정과 자위, 코끼리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한 본인의 작품 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어】 춘화, 가벼운 성, 에로티시즘, 여자, 예술



목 차

I. 서 론	1
II. 성을 주제로 한 한중일 삼국의 춘화 연구	3
2.1 한중일 삼국 춘화의 역사적 배경	3
2.2 한중일 삼국 춘화의 내용과 의미	5
III. 성을 주제로 한 본인 작품의 구상	11
3.1 작품의 주제	11
3.2 작품의 소재와 기법	12
3.3 작품의 색채와 이미지	13
IV. 성을 주제로 한 본인 작품의 내용 분석	15
4.1 여성의 몽정	15
4.2 여성의 자위	19
4.3 여성과 코끼리	24
V. 결 론	27
참고문헌	28
ABSTRACT	30

그림 목 차

그림 1.	《건곤일회도첩(乾坤一會圖帖)》	5
그림 2.	〈사시장춘(四時長春)〉	6
그림 3.	《운우도첩(雲雨圖帖)》	7
그림 4.	〈피화춘도(避火春圖)〉	8
그림 5.	《춘궁화첩(春宮畵帖)》	8
그림 6.	〈다양한 사랑의 방식〉	9
그림 7.	〈몽정-여인목욕〉	15
그림 8.	〈女心〉	16
그림 9.	〈여몽정기-1〉	16
그림 10.	〈여몽정기-2〉	17
그림 11.	〈dan jang〉	17
그림 12.	〈밧줄-1〉	19
그림 13.	〈밧줄-2〉	20
그림 14.	〈밧줄-3〉	20
그림 15.	〈밧줄-4〉	21
그림 16.	〈밧줄-5〉	21
그림 17.	〈더 높게!〉	22
그림 18.	〈밤 운동회〉	22
그림 19.	〈색동-여자〉	23
그림 20.	〈세얼간이〉	24
그림 21.	〈엔진포스〉	24
그림 22.	〈젠더우먼〉	25
그림 23.	〈반신반의〉	25
그림 24.	〈숲속의 공주〉	26

I. 서 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먹고 즐기고 마시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즐거운 일상 생활이다. 그만큼 쾌락과 욕망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 니체는 “섹스가 애초에 신성한 행위로 만들어 졌으나, 그것에 대한 열망은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과 쾌락은 어찌면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인간의 성 행위를 주술용, 방중술용, 최음용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 지금의 “포르노그래피”와 유사한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소생시키는 봄이라는 의미를 담고 성과 결부 시켜 이러한 그림을 “춘화”¹⁾라 부른다. 춘화는 또한 몰래 숨어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책방 가장 깊숙한 곳, 수장고에 모셔졌다. 그래서인지 아시아의 다른 나라 춘화에 비해 특히 한국의 춘화도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지금의 성 또한 무게가 가벼워지고 표현이 자유로워졌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몰래 보는 것은 똑같다. 과거의 성, 춘화도를 공부하며 본인이 작품의 주제로 설정한 “가벼운 성”이 서로 공통분모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의 춘화도를 통해 “가벼운 성”에 관한 방향성을 찾아보고 이를 현대화시킨 본인의 작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II장에서 성을 주제로 한 회화작품의 대표적인 예로 한중일 삼국의 춘화가 나타난 역사적 배경과 춘화 작품의 중요 내용, 의미를 살펴 보았다. 또한 III장에서는 이를 현대화시킨 본인 작품의 설계 과정을 작품의 주제와 소재, 기법, 색채,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IV장에서는 본인의 작품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여성의 몽정, 두 번째는 여성의 자위, 세 번째는 여성과 코끼리 이미지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춘화를 알아보며 춘화에 기록된 성이야기와 현재의

1) 춘화는 흔히 “남녀 간의 성교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정의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nnyun&logNo=10015227927>

가벼운 성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양의 에로티시즘²⁾과 본인의 작품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에로스란 말은 열광적으로 사랑하며 자신을 위해 다른 것을 구한다는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랑, 특히 성적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의 신의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플라톤은 이 말이 원래 갖고 있던 성적 의미를 승화시켜 철학용어로 사용하였다. 즉 그의 향연에서는 이 에로스를 통하여 지혜, 미, 선의 경지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인간본능의 강력한 힘, 즉 사랑이 그 본래의 뜻이며 남녀 간의 연애와 관계하는 관능의 표현을 기본으로 한다. 고대와 미개 인종에 나타나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나 여성의 나체와 생식기의 표현과는 다른 것이며, 또 성 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현대의 포르노 그래픽과는 구별된다.

II. 성을 주제로 한 한중일 삼국의 춘화 연구

2.1 한중일 삼국 춘화의 역사적 배경

춘화란 남녀의 성 행위를 비롯하여 성에 관한 상징적 내용을 표현한 작품이다. 주로 주술이나 방중술³⁾의 의미로 그려지다가 후에는 성욕을 촉진시키는 최음이나 향락의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일본, 한국의 삼국 중 춘화가 처음 그려진 것은 중국이다. 중국 춘화도의 연원은 BC.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방중술이 인도의 성적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은 방중술의 영향으로 인도 “탄트라”⁴⁾의 성적 신비주의가 생겨났고, 이것이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설도 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한나라 이래 성행위의 다양한 교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삽화로 그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춘화가 특히 유행했던 시점은 명나라 후반부였다. 명대 후반은 호색문화가 성행하면서 각종 소설과 성 학습 도해본(圖解本)들이 독립된 춘궁화(春宮畵) 판각본으로 발달했다.

그의 비해 일본의 춘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시점은 17세기 에도시대 때부터이다. 이 시대에 대량 생산된 춘화도는 우키요에(浮世繪) 작품들이 많다. 이러한 작품들은 성에 관한 주제와 모티브를 지나치게 확대, 축소하기도 했는데, 이런 기법은 에도시대 화가들 사이에서 크게 성행하였다.

3) 방중술(房中術) 또는 방중(房中)은 도교의 수행법 중의 하나로 보정(寶精)이라고도 한다. 방중은 음양(陰陽: 男女)의 교접을 말하는 것이며, 우주는 본시 음·양의 2기(二氣)로 성립되었으므로 모든 만물은 이 음양의 도(道: 이치·理致)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음·양이 교접하지 못하면 기(氣)가 유통되지 못하고 몸에 지장이 생겨 병이 많아져 장수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정욕을 행사해도 오히려 몸을 손상하여 단명하므로 방중술을 수련하여 불로장생해야 한다고 한다. 수·당의 의서(醫書) 중에는 《대청경(大清經)》, 《옥방비결(玉房秘訣)》, 《옥방지요(玉房指要)》, 《현녀경(玄女經)》 등 많은 도교 서적이 있다. (DAUM-위키 백과 국어사전)

4) 탄트라는 애초에 요가 수행의 한 형식으로 개발되었다. 80년경부터 일어난 퇴폐적인 변화를 탄트릭의 경향이라고 하며, 이러한 가운데 성립된 것이다. 흔히 성력을 숭배한다.

우리나라 춘화도는 17세기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16세기 말의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17세기 여진족의 침입을 받으며 조선 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18세기 영조와 정조 시대에 한양에는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상품 경제 발달로 인하여 서민들의 소비문화가 활발하였다. 그로 인해 예술분야와 유흥 문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쾌락적인 성격의 문화는 주로 기방을 중심으로 한 유흥 장소를 통해 수용되었고, 음사 소설류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남녀상열지사 같은 사설시조나 민간의 연애 소설이 유행했다.⁵⁾ 사실 우리나라 춘화는 예술성을 지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경직되고 이중적이었던 지배층의 사고와 일본이 심어 놓은 식민 사관에 의해 쇠퇴하고 오염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용당해 왔고, 아직도 각성 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있다.⁶⁾

이처럼 향락적인 풍조가 전반적인 문화의 성격을 지배하고 있던 조선 후기 사회는 성의 문화에 상당히 빠져 있는 상태였다.⁷⁾ 이미 춘화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한양이나 대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기방과 창가가 늘어났고, 간통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가 늘어났다. 흐트러진 성문화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의 법이 강화되고, 학문과 풍속의 타락을 걱정하여 타국에서 들어오는 서적 수입의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5) 김옥인, 「LUST-화정박물관 특별전」, 화정박물관, 2010, P.243.

6) 서정걸, 『한국의 춘화- 잃어버린 성을 찾아서』, 미술사랑, 2004, p.5.

7) 제프리 워스 저, 서동진, 채규형 역, 『섹슈얼리티: 성의정치』, 현실문화연구, 1994.

2.2 한중일 삼국 춘화의 내용과 의미

한국의 춘화는 기방 중심으로 형성된 유흥과 쾌락의 문화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당대 최고급의 직업화가인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은 물론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등도 춘화도에 참여하였다고 전해진다. 해학적이며 여백의 미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이루어진 전(傳) 김홍도의 《운우도첩(雲雨圖帖)》은 자연의 이치와 화면의 통일성 또한 우리의 관점과 시각으로 잘 표현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춘화첩이다. 그리고 전(傳) 신윤복의 《건곤일회첩(乾坤一會帖)》은 절제와 은유를 통해 자연스러우면서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이 화첩은 도회적인 세련과 멋이 몸에 밴 시정의 남녀를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색정(色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량과 건달 및 승려는 물론 양반과 기녀에게 이르기까지 신윤복의 그림에 사생된 농염한 생태 묘사는 대개 은근하고도 간접적인 색정 표현을 보인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 중에서 농후한 것만을 추려놓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신윤복의 그림의 소재나 등장인물, 그리고 은근한 회화적 특징은 춘화에 반영된 예가 많다.⁸⁾ 〈그림1〉은 1805년 이후로 추정되었으며, 《운우도첩》에 비해 더 은밀한 공간, 즉 실내를 중심으로 그렸다는 점에 포커스가 쏠린다.



그림 1.

《건곤일회도첩》

작가 미상(전 신윤복)

19세기 전반

지본담채

23.3 X 27.5cm

8) 최순우, 『이조회화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공간, 1968.

〈그림 1〉을 보면 구도의 짜임새와 여백의 미를 잘 볼 수 있다. 남녀의 정교하면서 재미있는 자세와 실제로 바로 앞에서 보고 그린 듯한 정면구도, 남녀만 있었다면 다소 허전한 공간 짜임새가 깔끔하고 정리된 선을 통해 더 흥미를 돋운다. 문지방 뒤로 훑쳐보는 여인의 애매모호한 모습조차 흥미를 돋운다. 뽀얀 속살의 여자와 전형적인 동양 남자 피부가 대조 되면서 화면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더 첨가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았으며 사생적인 묘사가 중심이 된 작품이다.



그림 2.

〈사시장춘(四時長春)〉

작가 미상(전 신윤복)

지본담채

27.2X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에서 보면 매우 흥미진진한 구도를 엿볼 수 있다. 남녀를 등장시키지 않고 상상만으로 이야기 거리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남자와 여자가 급하게 벗은 신발 두 켤레, 술상을 받쳐 든 계집종이 갈팡질팡하며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다. 춘화도에서 섹스를 하지 않아도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보는 이로 하여금 직접 보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말해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저 언덕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재밌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처럼 작가의 의도와 내면적 표현은 작품의 중요한 요소이다.

전 김홍도의 《운우도첩》을 보면, 자연과 인간의 본능에 대해 더 충실히 표현하였다. 《건곤일회첩》에서는 소극적으로 잘 표출하지 않은 반면에, 《운우도첩》은 자연과 섹스가 공존한다.



그림 3.

《운우도첩》

작가 미상(전 김홍도)

19세기 전반

지본담채

28 X 38.5cm

김홍도는 당대의 문인화가인 강세황(姜世晃)의 지도 아래 화격을 높였다. 강한 개성으로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여 한국적인 풍토 감각을 맑게 표현했고, 풍속화에 있어서는 해학과 풍자를 조화시켜 서민적인 풍취를 그렸다.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는 신윤복의 그림처럼 매력이나 사랑스러운 감정 같은 것은 볼 수 없다. 그의 풍속화 주인공들은 예쁜 기생이나 멋있는 한량이 아니라 둥글넓적하고 흰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평범한 서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윤복의 그림보다 더 한국적인 정서를 풍기고 있다.⁹⁾

〈그림 3〉은 단순히 보면 남녀가 보이지 않는 바위 뒤에서 은밀하게 정을 나누는 듯 보이지만, 풍경에 보이는 풀 표현이나 바위 표현이 마치 여성이 앉아 있는 느낌이 든다. 아마 그 둘의 자세가 앉아 있는 형상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 김홍도 춘화도는 마치 풍경춘화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 신윤복의 춘화도가 건물과 공간에 초점을 두었다면, 전 김홍도의 춘화도는 자연과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 거리가 들어가서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춘궁화첩(春宮畫帖)》은 교본에 가까운 도식적인 표현 기법 중심이다. 17세기의 명나라 후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작가 미상 화첩이 많이 나타났다. 중국의 《춘궁화첩》은 인물 중심이 아닌 남녀 누드가 특징적이다. 해학적인 부분보다 여성의 성을 부각시켰고, 전족(纏足)의 풍습과 더불어 중국

9) 진홍섭, 『한국 미술사』, 문예출판사, 2006.

남성의 독특한 성적 취향과 전통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는 〈피화춘도(避火春圖)〉 중의 한 장면이다.¹⁰⁾ 이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 나지 않는다는 믿음에 의해 붙여진 제목인데, 이는 춘화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다.



그림 4.

〈피화춘도(避火春圖)〉

중국 작가미상

17-18세기 추정

그림 4〉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이다. 마치 여인이 남성을 그리워하며 자위하는 듯 보인다. 울퉁 솟은 바위는 남성의 성기와 같다. 동그란 방안의 모습은 여성과 남성의 음양을 나타내듯 표현했다. 커튼이나 부수적인 공간표현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듯하다. 행위를 하지 않지만 상상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배경이다. 이 바위는 여성의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제로서 일종의 “여성 자위화”이다.



그림 5.

《춘궁화첩(春宮畫帖)》

중국 작가 미상

19세기 후반경

10) 우먼센스, (<http://www.i-mom.co.kr>), 2010.

〈그림 5〉의 《춘궁화첩(春宮畵帖)》은 부드러운 느낌의 석판화이다. 19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으며, 12가지 체위 중 7번째 체위로서, 침대 위에 누운 여자의 음부를 바라보며 오른쪽 발을 쥐고 있는 남자가 보인다. 중국의 전족 문화는 여성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발은 성과 직결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이 장면 역시 위에서 보인 여성의 자위화와 비슷하게 섹스를 하지 않았지만 은유적으로 행위를 하기 전의 모습을 다룬 회화이다.

일본의 춘화는 중국과 달리 17세기~18세기의 우키요에(浮世繪) 판화 유행이 춘화의 연결 고리가 되며 발달했다¹²⁾. 사랑과 섹스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성기의 확대와 부각으로 인해¹³⁾ 보는 이를 다소 민망하게 하지만, 한중일 삼국 중에서 가장 솔직한 성문화를 보여준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키요에 작가를 필두로 여러 명의 춘화 작가들이 나왔다.

일본적인 춘화의 특징을 잘 살린 가즈시 호쿠사이의 유명한 작품인 〈그림 6〉은 다양한 사랑의 방식 12장 채색판화 가운데 4 번째 장면이다.



그림 6.
〈다양한 사랑의 방식〉
가즈시 호쿠사이
에도시대
채색판화

이 작품은 남성성이 부각되었으며, 성기의 크기를 확대하였다. 한 여름의 정열적인 정사 후, 휴식을 즐기는 남과 여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남녀의 하단 밑 부분에는 검은 쥐들이 교미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화면 왼쪽

11) 상동.

12) 우키요에(浮世繪)는 일본의 17세기에서 20세기 초, 에도 시대에 성립된, 당대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경, 풍물, 풍속화를 그린 일본의 대표적인 회화이다.

13) 서정길, 『한국의 춘화- 잃어버린 성을 찾아서』, 미술사랑, 2004, p.4.

부근에는 익살스러운 표정의 어린 고양이가 앉아서 쥐들을 쳐다보는 듯하다. 인간과 동물이 같은 행위를 하고, 동물과 인간의 성적 행위는 똑같다고 해석된다.¹⁴⁾

한중일 삼국의 춘화를 보면, 각기 다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은 절제의 미와 자연과 음양의 조화를 작품으로 표출시켰다. 중국은 도식적이면서 여성성을 보여주는 듯 해 보이거나 남성성을 함께 볼 수 있다. 일본은 여성보다 남성성을 중요시 여기는 작품이 주가 된다. 첫 근원지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일본과 한국으로 전파되었지만, 성이라는 주제가 각 나라의 문화 속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해석되었음을 볼 수 있다.



14) 우먼센스, (<http://www.i-mom.co.kr>), 2010.

III. 성을 주제로 한 본인 작품의 구상

3.1 작품의 주제

본인의 작품은 춘화와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춘화를 이용한 소재도 보인다. 주인공은 여자이며, 여자의 몽정이나 음란함을 표현한 작품 위주이다. 작품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성의 몽정, 두 번째는 여성의 자위, 세 번째는 여성과 코끼리 이미지이다. 남성들만의 이야기가 있듯이, 본인의 작업은 여성의 일상적 이야기를 여성의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다.

첫 번째는 여성의 몽정 이야기이다. 매일 잠을 자고 꿈을 꾸다.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우연히 멋진 남성과 즐긴다. 꿈을 꾸고 난 후 여운이 남는다. 일상처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그녀는 옷을 벗고 정리를 한다. 그 장면들이 스치듯 맴돈다. 옷을 벗으며 장면들을 상상하는 모습을 몽상과 함께 표현한 작품들이다. 꿈과 현실, 어쩌면 현실에서 멋진 이성과 즐기지 못해 작품으로 표출시킨 것인지 모른다.

두 번째는 여성의 자위 이야기이다. 흔히 야동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나, 혼자 있을 때 자위가 아닌 춤을 추거나 어떠한 대상, 그것을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여성의 자위를 표현하는 소재들이 많이 등장한다. 밧줄, 딱풀, 뽕틀, 봉 등.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로 여자의 자위를 좀 더 정적으로 표현한다.

세 번째는 코끼리 모티브이다. 불교 설화에 등장하는 코끼리를 인용하여 작업한 것이다.¹⁵⁾ 세 가지의 모습을 지닌 불교 코끼리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여성과 코끼리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코끼리는 남성을 상징한다. 코끼리 코의

15) 부처님의 모친이신 마야부인께서 부처님을 잉태하실 적에 커다란 흰 코끼리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신 뒤 부처님을 잉태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동물의 왕'으로 불린다.

모습을 남근에 비교하여, 남성의 등장을 코끼리로 변형시켰다. 코끼리의 등장은 계속 여자만 그려왔던 본인의 작업에 새로운 변화를 준다. 신을 상징하듯, 남성을 신처럼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불교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성적인 모습과 결부시키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3.2 작품의 소재와 기법

본인의 작업은 “가벼운 성”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를 형상화하는 재료기법 또한 다양하다. 가벼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콜라주를 많이 사용한다. 초기 작업에는 광목천 위에 먹과 단순한 선, 간단한 채색 기법을 통해 가벼움을 표현하였다.

그림을 그리면서 초반에 먹이 들어가던 작품들은 채색 위주의 작업으로 변화되었다. 바탕천의 재료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채색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오브제를 많이 넣었다. 화면에 그림을 그리고 난 뒤, 다시 가위로 오려 오브제로 사용하기도 했다. 다른 바탕과 오린 작품을 다시 덧붙여 가벼움을 표현하였다. 프리켈은 일찍이 감각의 복식 부품들이 신체의 성적 부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성적 상징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복식이 성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¹⁶⁾ 지퍼 오브제 또한 이와 같은 기법중 하나이다. 채색의 안료는 단청에서 쓰는 화공안료를 사용하였으며, 선의 표현 들은 석채 주사의 고분 기법¹⁷⁾을 사용하여 여자의 선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본인이 오브제를 표현한 것은 또한 여성의 성과 가벼움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만약 지퍼를 보게 되면 열어보고 싶어진다. 열어보는 것은 성적 호기심과 직결되며, 그런 오브제를 통하여 본인의 가벼운 성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하였

16) Marry shaw Ryan(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 Hart and winston Inc), p.51.

17) 안료를 질퍽하게 희석하여 선으로 탐처럼 쌓는 기법. 주로 탕화나 단청에 많이 쓰이는 기법중 하나이다.

다. 반짝이는 펄 안료와 오브제의 만남은 단순한 천연 안료의 사용보다 가볍지만 가벼운 성과 재료적 측면에서 더 직결되기도 한다.

단청의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이 종종 나타난다. 단청의 장척을 사용하여 채색을 일정하게 하였으며, 반복되는 채색들이 정신없이 본인의 작업에 스며든다.

본인의 채색 방식 중 중요한 측면이 아교이다. 본래 채색에 들어가기 전에 아교로 교반수 칠을 하고 그 위에 채색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본인은 그 방법을 다 생략하고, 천에 바로 안료를 아교로 희석시켜 채색한다. 번지는 듯한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아교의 양은 평소보다 좀 더 진하게 한다. 채색이 다소 번지고 어눌해 보이지만, 수십 번의 채색으로 안료 층을 평평하게 만들어 작품을 완성한다.

3.3 작품의 색채와 이미지

본인의 작업에서는 색채가 매우 중요하다. 단청의 색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색을 제조하여 작품을 표현하였다. 파스텔 빛이 많이 나는 작품은 기존의 색에서 호분¹⁸⁾을 많이 사용하였다. 단청 화공안료 중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본인의 작업에 많이 들어간 색으로는 장단과 황을 들 수 있다. 피부 표현은 붕채를 이용한 가벼운 채색으로 투명한 얼굴을 표현하였고, 여자의 실루엣은 붉은 주사로 표현하였다. 주사는 깊이감이 있는 색이기도 하지만, 붉은 계열의 색이라 성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색이다. 붉은 계열의 색 표현으로 본인이 의도하는 성이미지와 색이미지를 맞추고자 하였다.

18) 胡(오랑캐 호)가 중국에서는 서역을 말한다. 지금의 이란으로 추정되는 “서역의 나라”에서 들어온 하얀 가루가 胡粉이라는 이름의 유래이다. 주성분은 탄산칼슘이며 원료가 되는 굴 껍질은 5-10년 이상 풍우에 노출, 풍화시킨 후, 염분과 불순물을 빼고 뺑아서 정제해 사용한다. 호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밑 작업에 쓰는 것과 완성 단계에서 쓰는 것이 있으므로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현, 『전통회화의 색』, 결 출판사, 2010, p.60.

한 줄로 배열한 듯한 오방색의 채색은 단청의 오방색과 우리나라의 오방색을 표현한 것이다. 호분의 가느다란 선과 두 가지 색이 반복되는 채색은 정신 없고 문란한 가벼운 성을 색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본인 작업의 핵심은 색감이라 할 수 있다. 강렬하면서 단색적인 부분들이 성이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자극적으로 부각시켜 준다. 적색의 표현과 음영 표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색감으로 그림을 단순하게 만들기도 한다.

머리카락을 검정색으로 하지 않은 점도 독특한 부분이다. 동양인이라 해서 머리를 검게 표현하는 것은 현대적인 패션과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더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을 분홍, 파랑, 빨강으로 하여 색감의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눈동자의 표현, 눈썹, 속눈썹의 색감을 머리색과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다소 국적을 알 수 없는 여인이 된 측면도 있지만, 색감의 차이를 주어 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VI. 성을 주제로 한 본인의 작품 내용 분석

4.1 여성의 몽정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것은 일상생활이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몽정을 하기도 하며, 몽정을 꿈꾸기도 한다. 본인의 작업이 몽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7.
〈몽정-여인목욕〉
2010년
견본채색
55X63cm

〈그림 7〉을 보면, 여인들이 저녁때 목욕을 하는 장면이 보인다. “2010년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수영도 하며 창피함을 잊은 채 수영을 하고 놀았다.”(본인의 작가 노트中) 이 작업은 꿈에서 나타난 형상을 표현하였다. 꿈을 표현하려고 색을 넣지 않았다. 어둠을 표현하였고 밤의 이미지와 반짝이는 안료 표현을 함께 하였다. 그 생생함을 잊지 못해 드로잉 같은 요소를 첨가하였지만, 기대만큼 멋진 그림은 아니었다. 채색이 들어가고 더 재미있는 표정과 더 섬세한 기법으로 그림을 표현 하였으면 더 멋진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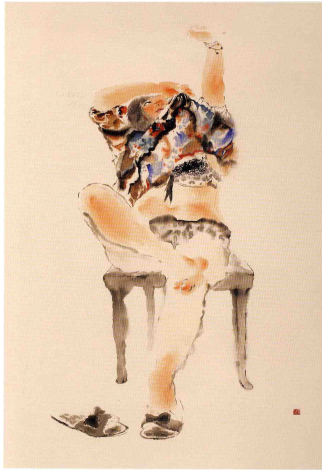


그림 8.

〈女心〉

2009년

광목에 채색

210X90cm

그림 8 〈女心〉은 본인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고시원에서 옷을 벗고 있던 중 제일 친한 언니가 방문을 열었다. 이 모습을 본 언니는 내게 “야! 너 벗는 모습 진짜 섹시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날 이후로 내 벗는 모습이 얼마나 섹시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 전신거울을 보며 작품을 그렸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된다. 통통한 본인의 모습과 살짝 힘이 들어간 팔, 어색하지만 전신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내 본연의 모습인 듯하다. 변진 작품 표현이 수줍고 어색한 나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



그림 9.

〈여몽정기-1〉

2010년

비단에 채색, 은박

130X65cm

그림 9 〈여몽정기-1〉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으로 전해지는 춘화를 보고 그 감흥을 토대로 작업한 것이다. 전 신윤복의 깔끔한 선과 따뜻한 색감이 좋았다. 전 김홍도의 거침없는 선들도 좋았다. 너무 재미있게, 신선하게 보아서인지 그 춘화들이 파노라마처럼 내 꿈속에 나타났다. 꿈속에서 만났던 춘화

와 내이야기를 합쳐 작품으로 표현해 보았다. 꿈이어서 제2의 세상을 표현하고자 색을 넣지 않고 흑과 백으로 표현했다.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부각시키고자 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배경의 은박 효과는 다소 나타내지 못한 아쉬운 작품이다.



그림 10.
〈여몽정기-2〉

2010년
비단에 채색, 필 안료
130 X 65cm

그림 10 〈여몽정기-2〉도 위와 같은 계열의 시리즈이다. 위의 작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채색을 변형시켜 다시 작업한 것이다. 비단에 곱게 피부를 표현하고자 했다. 꿈과 이를 느끼는 여인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아슬아슬한 구도와 채색이 미흡하여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림 11.
〈danjang〉

2010년
광목에 채색, 주사
130 X 65cm

그림 11 〈danjang〉은 여인이 단장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는 약간 번진 채색 기법이 있다. 주사 고분으로 머리카락을 표현한 작품 중 하나이다. 오방색을 사용하였고, 날씬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그린 작품이기도 하다. 꿈과 희망 사항을 표현하고자 물방울무늬의 여러 색을 찍은 작품이다.

꿈에서 기억은 아주 스치듯 나타난다. 본인의 작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창작의 첫발을 여자와 몽정, 일상으로 출발하였다. 채색과 구도가 불안정하긴 하다. 불안했던 2009년과 2010년을 대변해 주는 작품이다.



4.2 여성의 자위

현대에 들어와 성의 표현이 매우 자유로워졌다. 매체가 다양해지고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구하기도 쉽다. 이러한 성문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성의 자위화 작품이다. 여성을 쉽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인터넷 야동을 보아도 남자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는 않는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그런 여성을 다르게 해석하고자 했다.



그림 12.

〈masturbation-1〉

2011년

130 X 60cm

광목에 채색

그림 12 〈masturbation-1〉은 мастurbation이 등장하는 첫 번째 그림이다. 이 작품의 мастurbation은 속박을 상징한다. 여자가 상품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담았다. 여자는 묶여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즐기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배경을 여러 가지 색으로 채색하였다.



그림 13.

〈밧줄-2〉

2014년

광목에 채색, 지퍼 오브제

58X60cm

그림 13 〈밧줄-2〉는 차 안의 풍경이다. 차 안에서 여인이 속박되어 있는 듯 밧줄로 묶여 있다. 춘화도에서 보면 자연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배경 또한 변화된다. 이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여자와 밧줄이다. 밧줄이 더 음흉한 상상을 하게하며, 더 자극적으로 만든다. 이 작품에서 아쉬운 점은 너무 구속적인 느낌이 드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있었더라면 흥미로웠을 것이다.



그림 14.

〈밧줄-3〉

2014년

광목에 채색, 지퍼 오브제

130X60cm

그림 14 〈밧줄-3〉은 여성의 자위화가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다. 다소 민망한 자세와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아쉽다. 여자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다. 남성을 의인화하여 작품을 표현하였으며, 여자의 표정은 너무나 그 상황들을 즐기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너무 드러내어 그림이 다소 포르노처럼 되어 버렸지만, 구도와 표정을 나타낸 원초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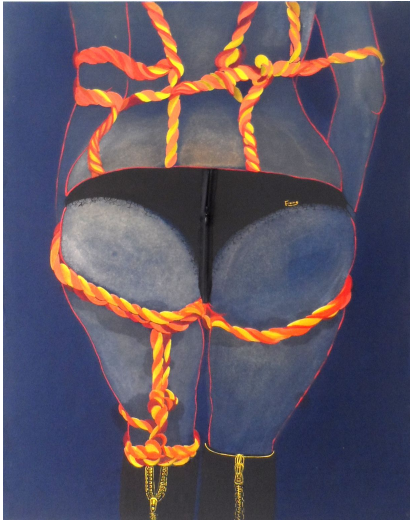


그림 15.

〈밧줄-4〉

2014년

광목에 채색, 지퍼 오브제

58X60cm

그림 15 〈밧줄-4〉에서는 여자의 여성성이 잘 부각되는 엉덩이와 허벅지 옆구리 등을 주제로 삼았다. 얽혀있는 밧줄이 여성의 억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의 성을 볼 수 있다.



그림 16.

〈밧줄-5〉

2014년

광목에 채색, 지퍼 오브제

130X60cm

그림 16 〈밧줄-5〉에 보이는 여자는 남성을 기다리는 여자이다. 마치 서커스를 하듯 표현되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성 역시 서커스 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오묘한 기분과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17.

〈더높게!〉

2014년

광목에 채색, 지퍼 오브제

130 X 60cm

그림 17 〈더높게!〉에서 봉과 미러볼의 정신없는 선은 성과 직결된다. 클럽에 가보면 여자들은 벗은 듯 안 벗은 듯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고 특정행위를 취하며 남성을 유혹한다. 이 봉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취해 있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느끼는 여인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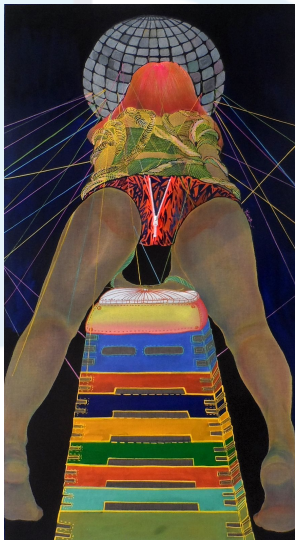


그림 18.

〈밤 운동회〉

2014년

광목에 채색, 지퍼 오브제

130 X 60cm

그림 18 〈밤 운동회〉는 그림 17과 마찬가지로 미러볼은 정신없는 밤 문화와 성문화를 상징한다. 여성이 뽀글을 하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이는 체위 중의 하나이다. 밤의 문화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 제목 또한 이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 정신없는 선들로 자유로운 성문화를 함께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9.

〈색동-여자〉

2011년

광목에 채색

130 X 60cm

그림 19 〈색동-여자〉는 여자가 앉아서 와인 잔을 들고 있는 단순한 여인으로 보이지만, 와인 잔에는 남성의 정액을 잔뜩 담아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인이 앉아서 속옷을 추스르는 모습 또한 이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자 의도한 작품이다.

4.3 여성과 코끼리

그림을 그리면서 여성의 이야기와 여성의 성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왔다. 그러던 중 남성을 함께 표현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하고 생각했다. 남자를 직접적으로 넣어 표현하면 너무 포르노적인 영상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코끼리를 통해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여 작품에 함께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20.
〈세 얼굴이〉
2014년
130 X 60cm
광목에 채색

그림 20 〈세 얼굴이〉는 코끼리를 처음 그린 작품이다. 이 코끼리는 세 가지의 얼굴을 지닌 코끼리로서 남성의 다양한 얼굴을 표현한 작품이다. 코끼리는 늑대의 형상을 하고 있다. 남자는 다 늑대라는 말이 있듯이, 작품에서 세 가지의 얼굴로 이성에게 다가가지만 그냥 생각뿐이란 것을 말해주는 작품이다. 머릿속의 여인은 최고이지만 아무리 눈을 떠봐도 현재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여자를 찾기에는 역부족인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그림 21.
〈엔진포스〉
2014년
100 X 90cm
광목에 채색, 오브제

그림 21 〈엔진포스〉의 코끼리는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정신 없는 코끼리 코는 왕성한 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성도착 남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작품을 얼핏 보았을 때는 예쁜 레이스 오브제와 파스텔 톤의 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여자를 밝히는 남성들에 경보를 울려주는 마음으로 작품을 그렸다.



그림 22.

〈젠더우먼〉

2010년

130 X 60cm

삼배에 채색, 오브제

그림 22 〈젠더우먼〉에서 젠더 우먼이란 남성과 여성을 합친 중성적 인물이다. 입에서는 남근이 뿔어져 나오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얼굴 골격을 중성화 시킨 작품이다. 다만 여성처럼 온갖 치장을 하고 누워 있고, 차를 탄 코끼리 군단이 몰려오는데, 코끼리는 남성을 상징하고, 배경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을 뜻하며,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를 융합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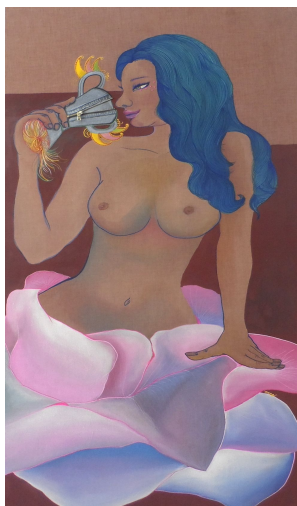


그림 23.

〈반신반의〉

2014년

130 X 60cm

광목에 채색, 오브제



그림 24.

〈숲속의 공주〉

2014년

35 X 40cm

순지에 채색, 오브제

그림 23과 24는 코끼리를 응용하고 변화시켜 작품 속에 넣어 보았다.

그림 23 〈반신반의〉에서는 반신반의하며 여인이 잔을 쳐다본다. 술인가? 물인가? 마실까? 말까?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쳐다보는 잔은 남성을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잔을 남성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코끼리로 의인화시켜 표현하였다. 작품의 의도가 다소 나타나지 않아 아쉬운 작품이다.

그림 24 〈숲속의 공주〉는 중심이 되는 코끼리를 변형시킨 것이다. 여자로 변장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다. 코끼리를 직접적으로 넣지 않고 변화를 주어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아본 소품이다.

V. 결 론

성이라 해서 다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가벼운 성”의 한 단면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무겁고 진지했던 성은 앞으로 더 가벼운 인스턴트 같은 성이 될 수도 있으며, 잘못된 만족이 어두움으로 탈색되어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을 잇는 작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론적 배경이 된 춘화도를 살펴보면 각 나라의 그림 스타일이 다르고 문화적 특색에 따라 표현 방식도 다르지만 성교를 하지 않아도 춘화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춘화도와 본인 작업의 공통점은 함축적으로 “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본인의 몽정 주제 작업에서는 춘화의 의미를 직접 인용하거나 차용해서 작업하기도 하였다. 본인은 어쩌면 작품을 통해 성욕을 돋우는 것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밀스런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에로티시즘과 성을 감각적, 육체적 쾌락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창작하고 싶어한 본인의 의도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처럼 춘화와 에로티시즘은 하나의 고유한 장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인의 성이야기를 더 자극적으로 할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표현할지 생각의 연결고리를 찾게 되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성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실마리도 찾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1. 저 서

- 김옥인, 『LUST-화정박물관 특별전』, 화정 박물관, 2010
- 서정걸, 『한국의 춘화- 잃어버린 성을 찾아서』, 미술사랑, 2004
- 이상현, 『전통회화의 색』, 결 출판사, 2010
- 제프리 워스 저, 서동진, 채규형 역, 『섹슈얼리티: 성의정치』, 현실문화연구, 1994
- 진홍섭, 『한국 미술사』, 문예출판사, 2005
- 최순우, 『이조회화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공간, 1968
- Marry, shaw Ryan,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 Hart and winston Inc, 1966

2. 논 문

- 강윤미, 「조선 후기 에로티시즘 회화 연구」, 전북대학교, 2009
- 임 윤,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4
- 장유정, 「현대인의 갈등 구조에 나타난 회화적 상징 연구」, 건국대학교, 2011
- 정희연, 「조선시대 춘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2

3. 인터넷 사이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nnyun&logNo=10015227927>

<http://www.i-mom.co.kr>



ABSTRACT

A Study of Work with the Theme of Love

– Centering around researcher herself's works –

Hwang, Yun-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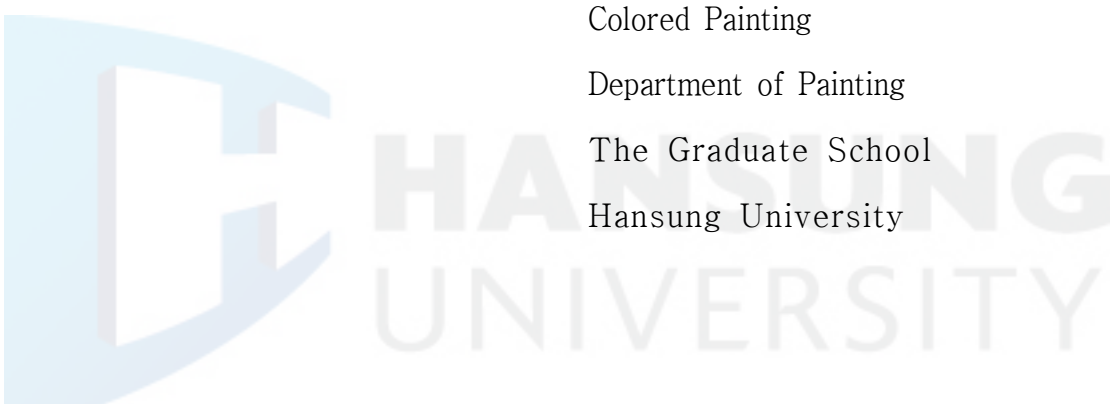
Major in Oriental Painting and True

Colored Painting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stylized blue 'H' shape. A large, light blue watermark of the university's name and logo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of the text area.

The shop where I stop by once a week, I unconsciously go to convenience store when I am hungry. Price is reasonable and various tastes are arranged. they are very delicious and easy to cook. Maybe, so I have only to choose what I want to eat. As much, there are good things as well as bad things. They fatten me and I am fed up soon, whether because of the flavoring nor of lacking mom's homemade cooking.

The sex today may be in similar situation. Anybody can easily make access to and pick up the sex. Now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becomes very daily behavior, there are also many ways to make an easy access to it. Internet world is like a unlimited mart. Like "open sesame", you can get anything, you can lightly pick and meet the other sex like doing shopping, and you can fulfill your desire simply through cyber sex, dirty movies or pictures. Sexual desire is also one of main instincts of human. Since the birth of Adam and Eve, numerous erotic works have been made, representing sex by arts with the necessity of propagation of the species. Why not the ancient people without carnal desire? Now there are so many media that provokes sexual urge, but in old times, people could see a sheet of picture at most. In that sense, eroticism culture is part of arts and a genre never to miss.

As a theoretical ground of works,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main content and the meaning of erotic painting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were investigated. The process of designing researchers' works with the theme of sex was presented centering around main theme and material, technique, color and image. In the main subject, researchers' world of works were considered in the concrete centering around women's wet dream and masturbation and elephant image.

【KEYWORD】 : erotic painting, light sex, eroticism, female, arts